

1. 다음은 잘못된 발음 자료를 수집하여 고치는 탐구 활동의 일부이다. 수정 사항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발음 자료	수정 사항
①	봐[바:]	자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 'ㅂㅚ'를 단모음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 대신 '[봐:]'로 발음한다.
②	담임[다님]	'ㅁ'을 그대로 연음시켜 발음해야 하므로 '[다님]' 대신 '[다임]'으로 발음한다.
③	밭을[바슬]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에서 'ㅌ'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슬]' 대신 '[바출]'로 발음한다.
④	젓다[점:따]	종성에서는 겹받침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점:따]' 대신 '[점:따]'로 발음한다.
⑤	참말[참말:]	원칙상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에만 나타나므로 '[참말:]' 대신 '[참말]'로 발음한다.

[2점]

- ① ② ③ ④ 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자립성 유무와 의미의 실질성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자립성 유무
 - 자립 형태소 :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의존 형태소 :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 의미의 실질성 유무
 - 실질 형태소 : 구체적인 대상, 상대, 동작 등을 나타내는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말과 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만을 나타내는 형태소

보기 2

ㄱ.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
 ㄴ. 하늘이 참 푸르구나.

[2점]

- ㄱ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나, 는, 오늘, 도, 책, 을, 읽-, -었-, -다'가 되겠군.
- ㄱ에서 '나, 오늘, 책'은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겠군.
- ㄴ은 자립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개수가 동일하겠군.
- ㄱ의 '읽-'과 ㄴ의 '푸르-'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겠군.
- ㄱ의 '는, 도, 을'과 ㄴ의 '이'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겠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 다음은 합성어에 대한 수업 자료이다. 제시된 자료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구성 요소	발음	의미 관계
물 + 고기	[물고기]	'물고기'에서 '물'은 '고기'가 사는 장소에 해당함
불 + 고기	[불고기]	'불고기'에서 '불'은 '고기'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함
산 + 바람	[산바람]	'산바람'에서 '산'은 '바람'이 부는 장소에 해당함
비 + 바람	[비바람]	'비바람'에서 '비'와 '바람'은 의미상 대등하게 연결

		됨
겨울+비	[겨울뻘]	'겨울비'에서 '겨울'은 '비'가 오는 시간에 해당함
이슬+비	[이슬비]	'이슬비'에서 '이슬'은 '비'의 모양을 가리킴

[2점]

- 합성어의 후행 요소가 같으면 동일한 음운 현상이 적용된다.
- 합성어의 의미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를 합친 것과 동일하다.
-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들 사이의 의미 관계는 항상 일정하다.
- 합성어의 구성 요소에는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포함된다.
- 합성어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에 따라 경음화의 적용이 달라진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종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음들이 음절 끝에 놓이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어야만 한다.

(나) 국어의 'ㅎ'은 다른 음운과 만날 때 여러 가지 변동을 겪는다. 가령 'ㅎ'이 'ㅂ, ㄷ, ㄱ, ㅈ'에 인접하면 두 자음이 합쳐져서 거센소리가 된다.

4. (가)의 밑줄 친 음운들이 지니는 공통점을 올바르게 지적한 것은?

[2점]

- 공기를 막아서 내는 예사소리이다.
- 발음되는 위치가 동일한 예사소리이다.
- 마찰을 일으키며 발음되는 예사소리이다.
- 음절 초성에는 쓰이지 못하는 예사소리이다.
- 모음 없이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예사소리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 (가)와 (나)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가)	(나)
①	닭도 → [닥또]	낱은 → [나은]
②	콩밭 → [콩반]	앞도 → [압또]
③	빛이 → [비치]	먹는 → [멍는]
④	비웃 → [비운]	좋지 → [조:치]
⑤	말이 → [미치]	놓는 → [논는]

[2점]

- ① ② ③ ④ 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른 분류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결합된 경우,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한편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따르지 않고 결합되는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어에는 결합하는 어근의 어순이 바뀐 합성어, 동사 어근끼리 결합할 때 연결 어미가 생략된 합성어 등이 있다.

(나)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합성어를 병렬 합성어라고 하고, 두 어근 중 하나의 어근이 다른 어근에 종속되는 관계를 지닌 채 결합된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라고 한다. 또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뜻을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2점]

- ① '논밭'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말로,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뛰놀다'는 동사와 동사가 연결 어미 없이 결합되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어긋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혐조했다.'의 '물불'은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유지한 채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것이므로 병렬 합성어이다.
④ '돌다리'는 '돌'이 의미 관계상 '다리'라는 말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종속 합성어이다.
⑤ '그는 사업을 알아먹었다.'의 '알아먹다'는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뜻을 잃어 버리고 새로운 뜻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된소리되기]
① 두 개의 안울림소리가 서로 만나면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먹+지 → [먹찌], 법+과 → [법과], 젓+소 → [젓쏘]
② 어간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ㄴ(ㄴ), ㅁ(ㅁ)'이고, 어미의 첫소리가 'ㄱ, ㅋ, ㆁ'일 때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앉+지 → [안찌], 남+고 → [남꼬]

[2점]

- ① 꽃밭에 꽃들이 만개했다.
② 그녀는 빨래를 삶지 않았다.
③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었다.
④ 아침에 국밥 한 그릇을 먹었다.
⑤ 그는 손짓으로 가방을 가리켰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 <보기>를 참고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우리말의 합성어 중에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산나물', '작은집', '들어간다'는 우리말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 네. '산나물', '작은집', '들어간다'는 각각 '명사 +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용언의 연결형 + 용언'으로서 우리말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이렇듯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른 합성어들을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한편 '용언의 어간 + 명사', '용언의 어간 + 용언', '부사 + 명사'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서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 용언의 어간과 용언 사이에는 어미가 개입되어야 하고, 부사는 일반적으로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꾸며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감안하여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할까요?

[2점]

- ① '척척박사'는 '부사 + 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② '뉘얌'은 '용언의 어간 + 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③ '점칼'은 '용언의 어간 + 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④ '검볶다'는 '용언의 어간 + 용언'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⑤ '스며들다'는 '용언의 어간 + 용언'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 <보기>의 ㉠에 들어갈 기호로 적절한 것은?

보기
다음은 용언을 구성하는 형태소들을 그 특성에 따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소식을 전해 준다.
㉠+㉡+☆
• 검은 연기가 치솟아 하늘을 덮었다.
◇+㉢+☆
• 범죄자, 한 달 만에 경찰에게 잡히다.
㉣+◇+☆
•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싶었다.
㉤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코드 : 3-087-067

10. <보기>의 ㄱ~ㄴ을 활용하여 사동문의 형성 과정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는 시끄럽게 굴며 아기를 울렸다.
ㄴ. 그녀는 집안 살림을 어린 딸에게 맡겼다.
ㄷ. 냉장고에 고기를 얼려 보관하는 것이 좋다.
ㄹ. 경찰이 방에서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ㅁ. 어머니께서는 그 줄을 여동생에게 잡게 했다.

[2점]

- ① ㄱ: 자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리-'를 붙여 만들었다.
② ㄴ: 타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기-'를 붙여 만들었다.
③ ㄷ: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리-'를 붙여 만들었다.
④ ㄹ: 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와 '-우-'를 모두 붙여 만들었다.
⑤ ㅁ: 동사 어근에 보조적 연결 어미 '-게'와 보조 동사 '하다'를 붙여 만들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 <보기 2>는 '-겠-'을 사전에서 찾은 결과이다. 이를 감안할 때, <보기 1>의 예문을 용례로 추가하기에 알맞은 것은?

보기 1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 내겠다.

보기 2
-겠-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2」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 나는 시인이 되겠다.

「3」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
 「4」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5」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 별사람을 다 보겠다.

[2점]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한글 맞춤법]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표준 발음법]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붙임] '이요, 아니요'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보기 2
 •우리는 친구가 ㉠아니요, 형제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지요, 형제이지요.
 •우리는 친구가 ㉢아니오, 형제이오.

[2점]

- ① ㉠의 '요'는 연결 어미이고, ㉢의 '요'는 종결 어미이다.
 ② ㉡에는 어간, 어미, 조사가 모두 쓰였다.
 ③ ㉠과 ㉢의 어간은 모두 '아니-'이다.
 ④ ㉡은 ㉠과 똑같이 발음할 수도 있다.
 ⑤ ㉢의 '오'는 종결 어미로 이를 '요'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3. <보기>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할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어떤 자음이라도 끝소리(받침)가 되면 대표음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의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받침은 다른 형태소와 만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다. 첫째, 받침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날 때 그 받침은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둘째,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와 만날 때 그 받침은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2점]

- ① 꽃 ② 덮다 ③ 못이
 ④ 부엌 ⑤ 술 위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 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억양이나 장단도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단위가기 때문에 음운의 일종이지만, 분절 음운에 기대어 나타나서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먼저 억양이란 문장의 어조 곡선을 이른다. 예컨대 "집에 가"를 말로 한다고 할 때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가 각기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단(長短)이란 모음을 통해 실현되는 소리의 길이를 이르며, 'ˊ'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 [눈]과 [눈ˊ]으로 발음되는 '눈[眼]'과 '눈[雪]'은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눈보라[눈ˊ:보라]'와 '첫눈[천눈]'에서 알 수 있듯, 장음은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점]

- ① 국어에서 자음과 모음도 비분절 음운에 해당하겠군.
 ② '눈[雪]'의 경우, 종성의 'ㄴ' 소리를 길게 발음해야 하겠군.
 ③ "눈이 안 보여"를 말로 할 때 억양과 장단이 동시에 사용될 수는 없겠군.
 ④ "혼자 살아"를 말로 할 때 끝을 올리는 억양을 활용하면 명령의 의미를 드러내겠군.
 ⑤ '거짓[거:질]'과 '말[말:]'이 결합하여 '거짓말'이 될 때 원칙상 '말[말:]'의 장음은 사라지겠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5. 다음은 한글 맞춤법에 대한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생: 한글 맞춤법 제1항에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말이 생소한가 보구나. 먼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머칠, 개구리'처럼 표준 발음법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지. 이 방법은 말의 원형을 일일이 밝힐 필요 없이 그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기 방식을 표음적 표기라고 하지. 하지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단다. 예를 들면 '물이다'라는 말은 [우리다]로 발음되는데, 이를 소리대로 적으면 읽는 사람은 '물이다' 혹은 '우리이다'로 이해하게 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물이다'와 같이 말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의미란다. 그리고 이러한 표기 방식을 표의적 표기라고 하지.
 학생: 아, 그러니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을 배려한 표기 방식이군요. 그래서 '굴이', '칼을'처럼 (㉢) 표기를 하는 것이군요.

- ㉠ ㉡ ㉢

[2점]

- ① 글을 읽는 사람 - 글을 쓰는 사람 - 표음적
 ② 글을 읽는 사람 - 글을 쓰는 사람 - 표의적
 ③ 글을 읽는 사람 - 글을 읽는 사람 - 표음적
 ④ 글을 쓰는 사람 - 글을 읽는 사람 - 표의적
 ⑤ 글을 쓰는 사람 - 글을 쓰는 사람 - 표음적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접사의 특성을 탐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에 붙어 파생어를 만든다. 접사 중에는 원래의 단어가 갖는 의미에 뜻을 더해 주거나, 그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 있다. 접사가 결합하면서 품사가 달라지기도 하고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
 ㄱ. 그는 강추위에 고생을 했다.
 ㄴ. 향아리 덮개가 또 깨지고 말았다.

- ㄷ. 그는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 ㄹ. 어머니는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
- ㅁ. 동생이 거실의 온도를 높였다.

[2점]

- ① ㄱ에서 '강추위'의 '강-'은 '매우 센'이라는 의미로, '추위'의 정도를 강화해 준다.
- ② ㄴ에서 '읽개'의 '-개'는 동사의 어근에 붙어 명사로 파생시켜 주므로 품사를 달라지게 한다.
- ③ ㄷ에서 '겁쟁이'의 '-쟁이'는 명사 뒤에 붙어 어근에 뜻을 더해 주지만 품사를 바꾸지는 못한다.
- ④ ㄹ에서 '읽히다'의 '-히-'는 어근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해 주면서 '동생이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의 구조도 바꾼다.
- ⑤ ㅁ에서 '높이다'의 '-이-'는 어근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거실의 온도가 높다.'라는 문장의 구조도 바꾸지만 원래 단어의 품사는 바꾸지 못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7.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밭'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볼, 불)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눈</th> </tr> <tr> <td>길게 발음할 때</td> <td>짧게 발음할 때</td> </tr> <tr> <td>눈이 평평 내린다.</td> <td>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td> </tr> </table>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점]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8.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이나, 모음 'ㅣ'나 'ㅜ/ㅠ'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는 현상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

[2점]

- | | |
|-------------|-------------|
| ① 박하 → [바카] | ② 앞던 → [안턴] |
| ③ 맞추+어 → 맞춰 | ④ 그리+어 → 그려 |
| ⑤ 쓰+어 → 써 | |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9.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밭'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볼, 불)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눈</th> </tr> <tr> <td>길게 발음할 때</td> <td>짧게 발음할 때</td> </tr> <tr> <td>눈이 평평 내린다.</td> <td>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td> </tr> </table>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	--------------

[2점]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0. <보기>의 발음 관련 질문에 답할 때, <선생님 설명>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보기	㉠ '똥투에 우표를 붙인다.'에서 '붙인다'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요? ㉡ '기억에서 잊히다.'에서 '잊히다'를 [이치다]로 발음하는 것이 맞나요? ㉢ '같이'는 [가티]로 발음하나요? [가치]로 발음하나요? ㉣ '밭이랑에 씨를 뿌리다.'와 '밭이랑 눈은 우리 땅이다.'의 '밭이랑'은 왜 발음이 다른가요? ㉤ '밭을 갈다.'의 '밭을'은 [바를]인데, '밭이 넓다.'의 '밭이'는 [바치]로 발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선생님 설명>

받침 'ㄷ, ㅌ'이 모음 'ㅣ'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센입천장소리(구개음)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음 'ㅣ'는 조사나 접미사에서 쓰인 것이어야 합니다. 즉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와 만날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1.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구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짚질'은 '동사 어간+접미사+접미사'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하기보다 먼저 '짜-'에 '-ㅁ'이 붙어 '짚'이 되고, '짚'이 다시 '-질'과 결합하여 '짚질'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곧 '[동사 어간+접미사]+접미사'인 것이다. '짚질'이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지만 이들 세 형태소는 계층적으로 결합하여 이들의 결합에는 친소(親疏)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짚질'은 '짚'에 '-질'이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로 보아야 한다.
----	--

[2점]

- ①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잠귀가 밝은 편이다.
- ②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욕심꾸러기이다.
- ③ 그 문장은 의문문이지만 물음표를 쓰지 않았다.

- ④ 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볶음밥을 먹었다.
- ⑤ 그 싸움쟁이는 새벽녘까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2. <보기 1>은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밑줄 친 단어들에서 찾아 각각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음운 변동 현상이란 원래의 음운이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음운 자체에서 변하는 경우와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보기 2
 ㉠ 마당을 나온 암탉[암탁]
 ㉡ 날이 추우니 담요[담 : 뇨]를 꼭 덮고 자라.
 ㉢ 그녀는 먹는[영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럽다.
 ㉣ 너는 그때 굳이[구지] 그 말을 했어야 했니?
 ㉤ 딸기는 하얀 꽃[꽃], 노란 열매가 인상적이다.

㉠ ㉡

[2점]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3.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학습한 후 용례 조사하기 과제를 <보기>와 같이 내 주었다. ㉠~㉤에 들어갈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류	내용	용례
'ㅅ' 불규칙	'ㅅ'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함.	짓- + -어 → 지어, 잇- + -어 → 이어, (㉠)
'ㄷ' 불규칙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ㅁ'로 변함.	듣- + -어 → 들어, 묻[問]- + -어 → 물어, (㉡)
'ㅂ' 불규칙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오/우'로 변함.	덥- + -어 → 더워, 좁- + -어 → 주워, (㉢)
'ㄹ' 불규칙	'ㄹ'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ㄹ' 형태로 변함.	흐르- + -어 → 흘러, 빠르- + -어 → 빨라, (㉣)
'ㄹ' 불규칙	어간이 'ㄹ'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어미 '-어'가 'ㄹ'로 변함.	이르[至]- + -어 → 이르러, 누르[黃]- + -어 → 누르러, (㉤)

[2점]

- ① ㉠: 긋- + -어 → 그어
- ② ㉡: 깨닫- + -아 → 깨달아
- ③ ㉢: 아름답- + -어 → 아름다워
- ④ ㉣: 찌르- + -어 → 찌러
- ⑤ ㉤: 치르- + -어 → 치러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4. <보기>의 밑줄 친 설명에 해당하는 용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어말 어미 '-았-/-었-'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일어난 일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실제 용례를 보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말하는 현재 시점과 일치하는 경우, 어떤 행위의 완료상을 나타내는 경우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자가 잊고 있던 일을 새롭게 기억해 낸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화자가 미리 확신하여 단정적으로 말할 경우 등에도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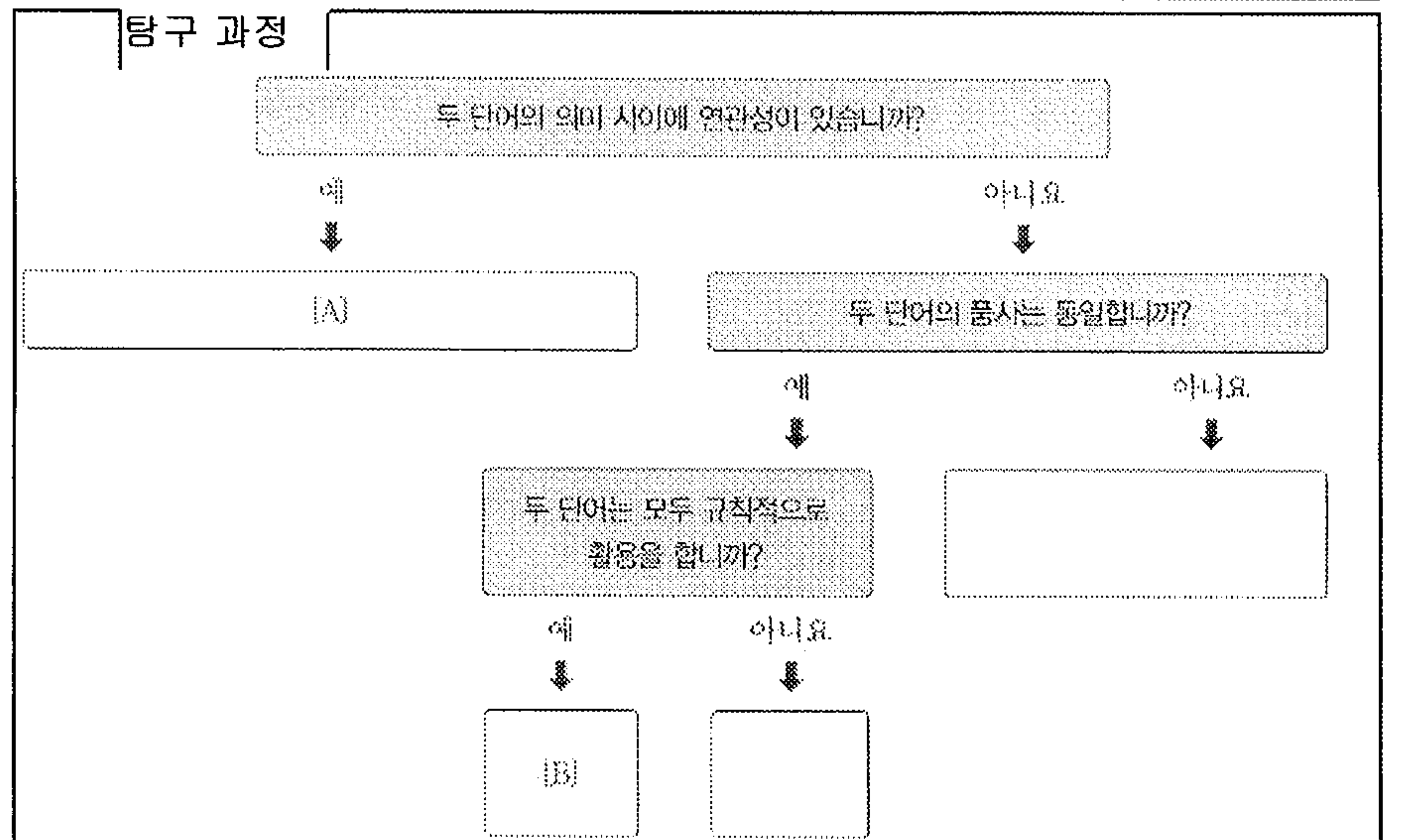
[2점]

- ① 그는 지금 의자에 앉았다.
- ② 나는 어제 영화를 보았다.
- ③ 너 이제 학교에는 다 갔다.
- ④ 아, 내일이 오빠 생일이었네.
- ⑤ 그는 마침내 숙제를 다 마쳤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5.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차례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ㄱ. 뜨다: 그는 동작이 영 뜨다. / 종이배가 물에 뜨다.
 ㄴ. 붓다: 은행에 적금을 붓다. / 자루에 밀가루를 붓다.
 ㄷ. 묻다: 옷에 잉크가 묻다. / 그에게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 묻다.
 ㄹ. 갈다: 부속품을 쫑은 것으로 갈다. / 구슬을 만들기 위해 옥돌을 갈다.



[A] [B]

[2점]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ㄱ
- ⑤ ㄹ ㄷ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6.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다고 할 때, ㉠과 ㉡에 적용되는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 된소리되기: 예사소리(평음)가 된소리(경음)로 바뀌는 현상.
 • 유음화: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동화되는 현상.
 • 자음군 단순화: 음절 말의 겹받침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
 • 비음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ㄹ, ㅇ'으로 동화되는 현상.

• 구개음화: 'ㅣ' 또는 반모음 'y'로 시작하는 의존 형태소 앞에서 'ㄷ, ㅌ'이 구개음 'ㄷ, ㅌ'이 되는 현상.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보기		
날날이 → [날 : 나치] → [난 : 나치]		
	㉠	㉡
①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비음화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구개음화	비음화
③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자음군 단순화
④	자음군 단순화, 유음화	구개음화
⑤	유음화, 된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2점]

- ① ② ③ ④ 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7.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 변동의 한 예로 ㉠ '음운 축약'이 있다. 자음 축약의 경우는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이 된다. 모음 축약의 경우 모음 'ㅣ'나 'ㅜ/ㅠ'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루게 된다.

[2점]

- ① 그가 꿈쩍도 않던 돌을 움직이자 모두 놀랐다.
- ②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 ③ 기차 출발 시간에 잘 맞춰 나오니까 매우 편했다.
- ④ 이번에는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려 줄 수 있었겠니?
- ⑤ 오랜만에 친구들이 빠짐없이 와서 매우 즐거웠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8. 다음을 참고할 때, 음운 변동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래의 음운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나는 것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먹는'은 [멍는]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ㄱ'이 뒤에 오는 음운 '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입력되는 음운을 a, 출력되는 음운을 b, 환경을 X와 Y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aY → XbY
 먹는 [멍는]

이때 a는 Y의 영향을 받아 음운이 변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2점]

- ① '봄이 → [보미]'의 'ㅁ'
- ② '곡물 → [공물]'의 'ㄱ'
- ③ '권력 → [귄력]'의 'ㄴ'
- ④ '같이 → [가치]'의 'ㅌ'
- ⑤ '잡고 → [잡꼬]'의 'ㄱ'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9. <보기>의 ㉠, ㉡과 유사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간혹 '문을 잠궤 놓았다.'와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잠궤'가 아닌 ㉠ '잠가'로 표기해야 한다. '감치를 담궤 놓았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 '담가'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이와 같은 오류는 '바꾸다', '두다'와 같이 어간이 'ㄱ'로 끝나는 사례와 혼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2점]

- ① '밥을 푸다.'에서 '푸다'의 어간 '푸-'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ㅌ'가 탈락하여 '퍼'와 같은 형태가 된다.
- ② '길을 걷다.'에서 '걷다'의 어간 '걸-'은 어미 '-어'와 결합하면 'ㄷ'이 'ㅌ'로 바뀌어 '걸어'와 같은 형태가 된다.
- ③ '고기를 굽다.'에서 '굽다'의 어간 '굽-'은 어미 '-어'와 결합하면 'ㅂ'이 'ㅍ'로 바뀌어 '구워'와 같은 형태가 된다.
- ④ '시험을 치르다.'에서 '치르다'의 어간 '치르-'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ㄷ'가 탈락하여 '치러'와 같은 형태가 된다.
- ⑤ '숲이 푸르다.'에서 '푸르다'의 어간 '푸르-'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어미가 '-려'로 바뀌어 '푸르려'와 같은 형태가 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0. 다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다음은 '소년'과 '소녀'의 의미 성분을 분석한 사례인데, 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소년: [+인간][+남성][-성숙]
 소녀: [+인간][-남성][-성숙]
 ※ +는 그러한 성질이 있음, -는 그러한 성질이 없음.
 학생: 단어의 성분 분석을 보니까, '소년'과 '소녀' 두 단어에는 '인간'과 '미성숙'이라는 공통된 의미가 있네요.
 선생님: 그렇다면 다음 성분 분석 사례에서 ㉠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쓰다: [+㉠][+머리나 얼굴]
 끼다: [+㉠][+손이나 손가락]
 입다: [+㉠][+몸통]
 신다: [+㉠][+발]

[2점]

- ① 덮음 ② 넣음 ③ 꿇음 ④ 투입 ⑤ 착용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변동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음운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바뀌는 현상을 음운 변동(變動)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의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 교체: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 탈락: 한 음운이 단순히 없어지는 음운 변동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음운 변동
 ㉣ 축약: 인접한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 그런데 이러한 음운 변동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깨끗하다'를 발음할 때의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깨끗하다 → [깨館하다] → [깨끄타다]

(a) (b)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2. <보기>의 ㉠~㉣의 구체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용언 중에는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을뿐더러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용언에는 '잇고, 잇지, 이어, 이어서', '돕고, 돕지, 도와, 도와서' 등으로 활용하는 용언인 '잇다', '돕다'와 같이 ㉠어간이 바뀌는 것, '하고, 하지, 하여, 하여서', '이르고, 이르지, 이르러, 이르러서 [쫘]' 등으로 활용하는 용언인 '하다', '이르다 [쫘]'와 같이 ㉡어미가 바뀌는 것, '하얗고, 하얗지, 하얘, 하얘서' 등으로 활용하는 용언인 '하얗다'와 같이 ㉢어간과 어미 모두가 바뀌는 것이 있다.

[2점]

- ① ㉠: 깨닫다 ② ㉠: 높다 ③ ㉡: 일컫다
- ④ ㉡: 푸르다 ⑤ ㉢: 파랗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3. <보기>에서 언급한 '품사의 통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품사는 각 부류에 소속되는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 범주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2점]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그 사람만큼 될 수 있다.
- ②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 ③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벌써 날이 밝는다.
- ④ 다섯까지는 필요 없고 셋이면 되겠는데.
고구마가 다섯 가마니에 좁쌀이 두 가마니였다.
- ⑤ 비 온 뒤라 그런지 앞산이 한결 더 푸르러 보인다.
푸른 공기를 들이마셨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4. ㄱ~ㅁ의 밑줄 친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어는 의미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닭이 콩을 먹었다.'에서 서술어 '먹다'는 '~이 ~을 먹다.'와 같은 구조로 사용되어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 ㄱ. 책이 상당히 두껍다.
- ㄴ. 꽃이 예쁘게 피었다.
- ㄷ. 아기 사슴이 어미 사슴과 뿔았다.
- ㄹ. 손님이 점원에게 웃값을 치렀다.
- ㅁ. 사장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2점]

- ① ㄱ: '두껍다'는 '~이 두껍다.'라는 구조이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② ㄴ: '피다'는 '~이 ~게 피다.'라는 구조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ㄷ: '뿔다'는 '~이 ~과 뿔다.'라는 구조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ㄹ: '치르다'는 '~이 ~에게 ~을 치르다.'라는 구조이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⑤ ㅁ: '빌리다'는 '~이 ~에서 ~을 빌리다.'라는 구조이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5.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호: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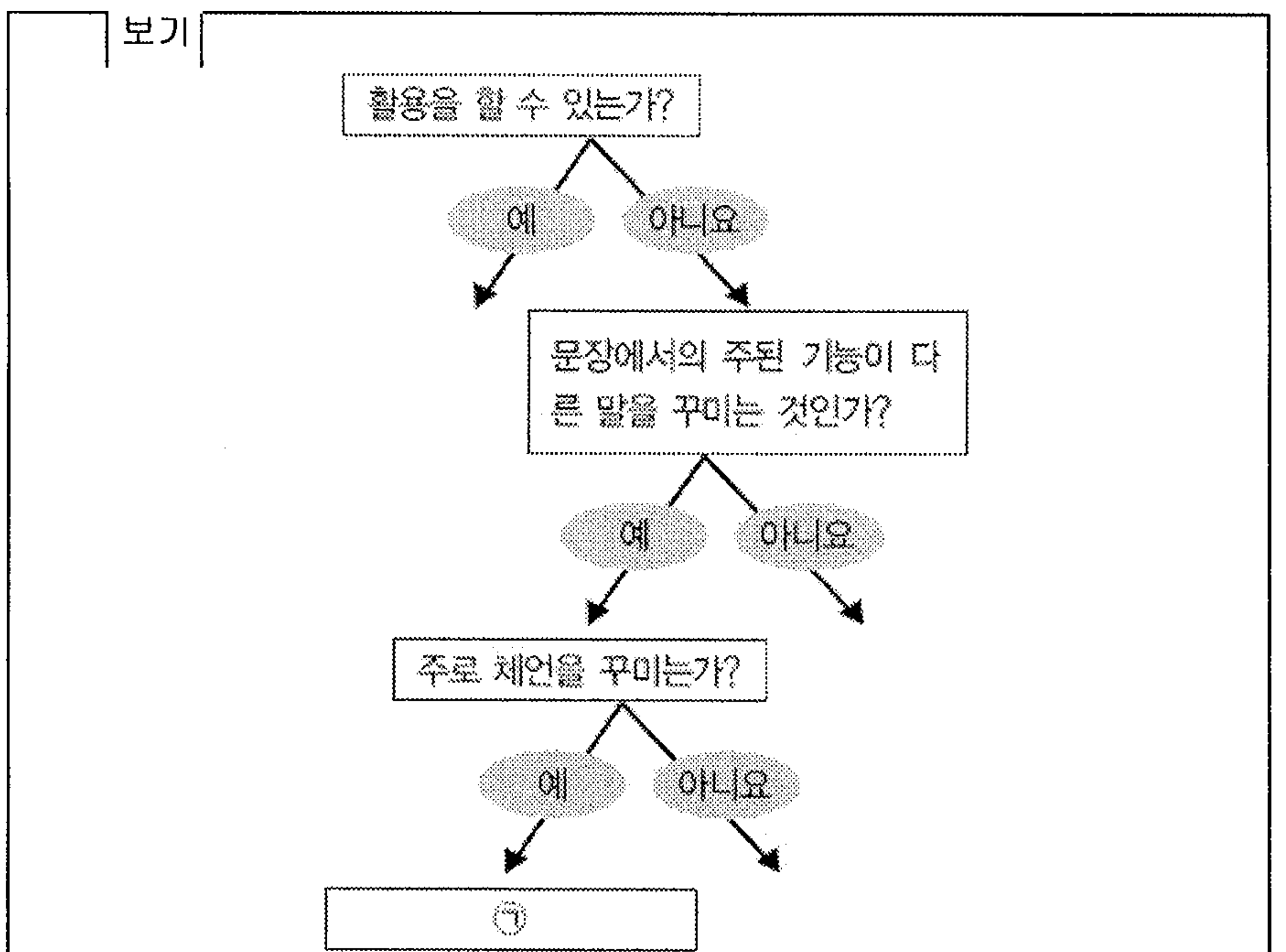
㉠	○-지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2점]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6. <보기>는 품사 분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단어 중, ㉠에 해당하는 것은?



[2점]

- ①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그날이 왔다.
- ② 동생은 못 본 사이에 출쩍 키가 컸다.
- ③ 우리는 전망이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
- ④ 그는 성공을 위해 같은 노력을 다했다.
- ⑤ 옛말에 예쁜 자식은 매로 키우라고 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7.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보기	품사	형태	기능	의미
-----------	----	----	----	----

• 단어를 문법적·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나누어 놓은 것을 ㉠(이)라고 한다.

• 단어들은 ㉡ _____ 이/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먹다, 예쁘다, 이다'와 같은 단어들은 ㉢ _____ 이/가 변하는 예이다.

•단어는 문장에서 어떤 ㉠ _____ 을/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체언은 ㉡ _____ 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 수 있다.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8. <보기>의 ㉠에 해당하는 명사가 아닌 것은?

보기
 자립 명사는 관형어의 꾸밈 없이 홀로 쓰일 수 있고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존 명사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한다.

[2점]

- ① 제주도에 가 본 지가 오래되었다.
- ② 밥 먹을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프다.
- ③ 우리는 먹을 데를 찾아서 이동했다.
- ④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 ⑤ 나는 사랑하는 이에게 헌신하고 싶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9.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2점]

- ① 학생 서넛이 찾아왔어요.
- ② 우리 집 식구는 다섯이다.
- ③ 아주머니, 사과 하나만 주세요.
- ④ 우리의 이념 중 첫째는 진리이다.
- ⑤ 우리나라는 세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영수 : ㉠철수야, 너 ㉡새 구두 샀어?
 철수 : ㉢아니, ㉣산 것이 아니라, 영희에게 선물로 받은 거야.
 영수 : 정말 ㉤멋진 구두네.
 철수 : 칭찬 고맙다. 그럴지 않아도 영희에게 구두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말했어.
 영수 : 다음 주 ㉦희철이의 결혼식에 갈 때, 그걸 신고 가면 되겠다.
 철수 : 좋은 생각인데? 저번에 산 정장과 잘 어울리겠다.

40. ㉠과 ㉣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감탄사는 모두 이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②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 ③ 글에서 이 문장 성분 뒤에는 흔히 반점(,)을 찍는다.
- ④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 (이)여'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 ⑤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1. <보기>의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에 주목할 때,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조사는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를 말한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영수가 공부는 못하지만 집안일은 잘 돕는다.
 ㄴ. 방과 후에 너만 남아서 일을 좀 도와주겠니?
 ㄷ. 그는 자기가 마치 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군다.
 ㄹ.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ㅁ. 그 사람은 매우 가난한데다 한 명의 친구조차 없다.

[2점]

- ① ㄱ의 '은'은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과는 대조적인 의미를 더해 주고 있어.
- ② ㄴ의 '만'은 다른 학생들은 모두 배제한다는 단독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어.
- ③ ㄷ의 '이나'는 사장의 직책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어.
- ④ ㄹ의 '밖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어.
- ⑤ ㅁ의 '조차'는 가난한 처지를 포함하면서 한 명의 친구도 없다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어.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2. <보기 1>은 인칭 대명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을 읽고 <보기 2>의 인칭 대명사의 종류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인칭 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우선 지시 대상에 따라 지시 대상이 화자인 경우를 1인칭 대명사, 청자인 경우를 2인칭 대명사, 화·청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를 3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또한 특정 대상의 지시 여부에 따라 앞서 나온 3인칭 주어를 다시 반복할 때 사용하는 재귀 대명사,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부정칭 대명사,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가 있다.

보기 2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심은 소나무 묘목을 매우 소중히 가꾸셨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장난으로 그것이 뿌리째 뽑혀 버렸어요. 아버님께서서는 화가 나서 우리 둘 중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어보셨죠. 동생은 제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잘못을 모른 척해 주었어요. 동생은 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그땐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이 ㉤자기 멋대로인 때였죠.

[2점]

- ① ㉠: 재귀 대명사
- ② ㉡: 부정칭 대명사
- ③ ㉢: 1인칭 대명사
- ④ ㉣: 3인칭 대명사
- ⑤ ㉤: 재귀 대명사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3. 다음 문장에서 관형사를 모두 찾아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로 분류해 보자.

•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단.
 • 새 책은 제목이 무엇이더라?
 • 그 사람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 (1) 성상 관형사 :
- (2) 지시 관형사 :
- (3) 수 관형사 :

[Blank box]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4. <국어사전>의 정보를 활용하여 <보기>의 ㉠~㉣에 쓰인 '다른'의 품사를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국어사전>
 •다른 「관형사」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 딴
 •다르다 「형용사」 [달라, 다르니]
 【…과(와)】(‘…과(와)’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보기
 ㉠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 편식하지 말고 다른 것도 먹어라.
 ㉢ 그녀의 외모가 평소와 다른 탓에 깜짝 놀랐다.
 ㉣ 늦게 도착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 쌍둥이들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자란다.

관형사 형용사

[2점]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으며,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 나는 무척 기뻐다.
 ㉡ 그는 먹을 것을 좋아한다.
 ㉢ 김 대리,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야!
 ㉣ 젊은이여, 드높은 이상을 가졌는가?
 ㉤ 설마 그녀가 너에게 돈만 주었니?

[2점]

- ① ㉠~㉣을 보니 문장이 성립하는 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는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는군.
- ② ㉠과 ㉡을 보니 부사어는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것과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것이 있군.
- ③ ㉢과 달리 ㉣은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이지만, 문장이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군.
- ④ ㉣과 달리 ㉤의 독립어는 독립어 위에 이어지는 문장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군.
- ⑤ ㉣과 달리 ㉡은 관형어를 생략할 경우,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 품사: 단어들을 문법적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 지어 놓은 것으로, 크게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이다. 품사는 '형태'를 기준으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고, '기능'을 기준으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의미'를 기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 문장 성분: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대체로 어절 단위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는 어절이 문장 성분으로 쓰이지만, 어절이 모여서 이루어진 구나 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기도 한다. 문장 성분은 크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로 나눌 수 있다.

보기 2
 [예] 첫 시험을 무사히 치러서 기분이 좋았다.

구분	첫	좋았다
품사	㉠	㉣
문장 성분	㉡	서술어

㉠ ㉡ ㉣

[2점]

- ① 관형사 관형어 형용사
- ② 관형사 부사어 동사
- ③ 관형사 부사어 형용사
- ④ 수사 관형어 형용사
- ⑤ 수사 부사어 동사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7.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밑줄 친 관형절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보기
 관형사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눌 수 있다. 관계 관형절은 안긴 문장 속의 어떤 문장 성분이 그 절의 수식을 받는 안은문장 속의 체언과 동일하기 때문에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이 생략된다. 그러나 동격 관형절은 안긴 문장과 그 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의미상 동격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문장 성분이 생략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자.
 a. '그녀는 음악을 좋아한다.' +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그녀를 사랑한다.
 b. '그가 범인이다.' + '나는 확신이 없다.' → 나는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없다.
 a는 안긴문장에 두 문장의 공통 성분인 '그녀'가 생략되어 있는 반면, b는 안긴문장에 생략된 성분이 없다. 따라서 a는 관계 관형절, b는 동격 관형절이라 판단할 수 있다.

[2점]

- ① 향기가 좋은 꽃이 가득하다.
- ② 내가 읽을 책이 책장에 가득하다.
- ③ 내가 태어난 그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
- ④ 내가 공부한 학교는 저 언덕 끝에 있다.
- ⑤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8.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Blank box]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2점]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9. <보기>의 ㄱ과 ㄴ, ㄷ과 ㄹ을 대비하여 추리할 수 있는 파생 접미사와 어미의 차이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파생 접미사와 어미는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ㄱ. 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다.
 ㄴ. 점심을 먹고 잠시 낮잠을 잤다.
 ㄷ. 태양이 높이 솟아 있다.
 ㄹ. 하늘은 높고 바다는 푸르다.
 'ㄱ'과 'ㄷ'의 파생 접미사인 '-이'와, 'ㄴ'과 'ㄹ'의 어미인 '-고'를 대비하면 이러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2점]

- ① 어미는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파생 접미사는 그렇지 않다.
- ② 파생 접미사는 의미가 일정하지만 어미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다.
- ③ 어미와 결합된 말은 사전에 등재되지만 파생 접미사와 결합된 말은 그렇지 않다.
- ④ 파생 접미사는 어근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지만 어미는 그 결합이 제약되어 있다.
- ⑤ 파생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데 어미는 단지 활용형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0.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호: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 -지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2점]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전통 음악은 일반적으로 정악(正樂)과 민속악으로 구분한다. 정악은 궁중에서 연주되던 넓은 의미의 아악(雅樂)과 선비들이 즐기던 아정(雅正)한* 음악을 가리키며, 민속악은 판소리, 산조, 민요, 농악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서민들 사이에 즐겨 연주되고 감상되던 음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여러 종류의 한국 전통 음악 중에서 어느 음악이 가장 대표적이나, 또는 어떤 종류의 음악이 가장 좋은 음악이나 하고 물어 볼 때는 실로 난처한 때가 있다. 그것은 서양 음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향곡이나 실내악곡은 예술성이 풍부하고, 오페라나 이탈리아 가곡은 예술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악은 국악대로, 국악 중에서도 정악이나 민속악은 그 나름대로의 특징과 멋을 지니고 있다. 정악은 잔잔한 호수를 대면하고 있을 때처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만드는 멋이 있다. ㉡반면 민속악은 민요처럼 흥청거리고 구성지며, 신명이 나는 멋이 있어서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각기 그 멋이 다르다고 하겠다.
 - 권오성, '영산회상(靈山會相)과 시나위'
 * 아정하다 : 기품이 높고 바르다.

51. ㉠, ㉡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문단이나 문장 간의 긴밀한 결합력을 높인다.
- ② 풍성하고 질 높은 글의 내용 생성에 기여하고 있다.
- ③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고 있다.
- ④ 모든 문장과 문단이 여러 주제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준다.
- ⑤ 이어지는 문장을 강조함으로써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2.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청자에게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이라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 한다. 한편 의문문의 형식을 갖 추고 있지만 굳이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도 있는데, 이를 ㉠수사 의문문이라 한다.

[2점]

- ① 아무려면 나만 한 사람이 또 있으랴?
- ② 나에게도 천재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 ③ 이곳에서 집까지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요?
- ④ 이런 일이 힘들어 봐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⑤ 꼬마들도 알 만한 그렇게 쉬운 것을 누가 모르니?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3. ㉠~㉣을 바탕으로 문장의 구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오늘 집에서 선생님께서 내 주신 숙제를 하였다. …………… ㉠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오늘은 무척 의미 있는 하루였다. ㉡

[2점]

- ①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 ② ㉠의 '선생님께서 내 주신'은 '숙제'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 ③ ㉡의 '함께'를 '모여'로 고치면, ㉡은 겹문장이 된다.
- ④ ㉡의 '의미 있는'은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 ⑤ ㉡은 '특별한 ~ 없었지만'과 '오늘은 ~ 하루였다'가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4.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2점]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5. <보기>를 바탕으로 '의문문'에 대해 탐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오늘 회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ㄴ. 지금 비가 오니?
 ㄷ. 내가 이 상자를 설마 못 들겠느냐?
 ㄹ. 대학에 합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ㅁ.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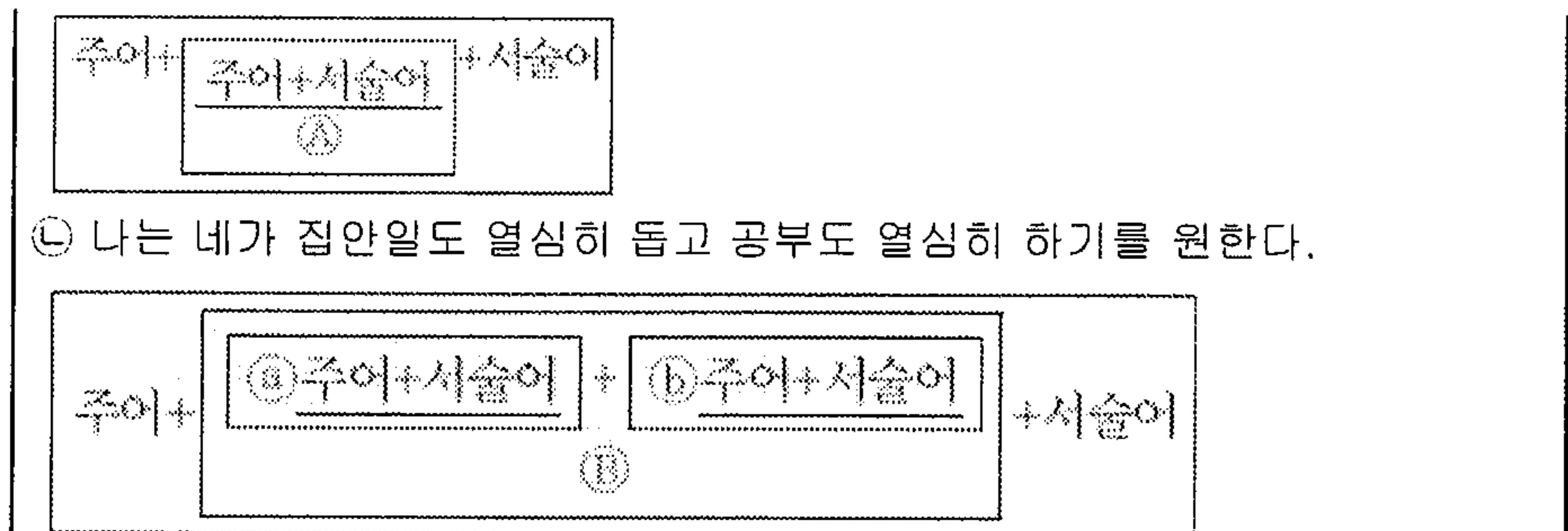
[2점]

- ① ㄱ이 듣는 이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면, ㄴ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군.
- ② ㄷ은 반어적인 기능을 가진 의문문으로 '내가 이 상자를 들 수 있다.'라는 평서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③ ㄹ은 소망이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서문이나 감탄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④ ㅁ은 듣는 이에게 '그만두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령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⑤ ㄷ~ㅁ은, ㄱ이나 ㄴ과는 달리 듣는 이에게 특별히 대답을 요구하고 있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6. <보기>의 ㉠, ㉡을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저곳이 우리가 입학할 대학이다.



[2점]

- ① ㉠의 ㉡에서는 안긴 절을 만드는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 ② ㉠에는 두 개의 주어가 모두 나타나 있다.
- ③ ㉢의 ㉢과 ㉣은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
- ④ ㉢의 ㉣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의 ㉡와 ㉢의 ㉣은 안긴 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7.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그런데 하나의 문장에서는 이러한 높임 표현이 둘 혹은 세 개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상대 높임의 경우 해요체는 +로, 해체는 -로 표시하면, (ㄱ)과 같은 문장은 (-)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창호가 형한테 꽃다발을 주었어. (ㄱ)
 [-주체], [-객체], [-상대] (-)
 그렇다면, 다음 문장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영수가 어머니께 꽃다발을 드렸어요.

[2점]

- ① [-주체], [-객체], [+상대] ② [+주체], [-객체], [+상대]
- ③ [-주체], [+객체], [-상대] ④ [-주체], [+객체], [+상대]
- ⑤ [+주체], [+객체], [+상대]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8. <보기>에 나타난 시간 표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a.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모두 열 명이다.
 b. 그 책을 읽는 사람은 모두 열 명이다.
 (나) a. 누군가가 오는 기척이 들린다.
 b. 누군가가 오는 기척이 들렸다.
 (다) a. 건희는 서울에 가다가 왔다.
 b. 건희는 서울에 갔다가 왔다.
 (라) a. 민지는 지금쯤이면 부산에 가 있겠다.
 b. 민지는 내일쯤이면 부산에 가 있겠다.

[2점]

- ① (가): a의 '-은'은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고, b의 '-는'은 현재의 시제를 나타낸다.
- ② (나): a의 '-는'과 b의 '-는'은 모두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 ③ (다): a의 '가다가'와 b의 '갔다가'는 모두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나타낸다.
- ④ (다): a의 '가다가'는 목적지까지 다 가지 않고 중단한 것을 b의 '갔다가'는 목적지까지 도착했다가 돌아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⑤ (라): a와 b의 '-겠-'은 모두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일을 추측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9. 다음 문장을 '해체'의 부정 명령문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한 것은?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아라.

[2점]

- ①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아.
- ②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마.
- ③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으세요.
- ④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말게.
- ⑤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0.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높임법 중 객체 높임법은 문장 내에서 주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높임법이다. 예를 들어 "형은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라는 문장에서 주체 '형'이 선물을 드리는 행위는 '선생님'이라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대상을 높이기 위해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객체 높임법은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 나는 오랜만에 형님을 뵈었다.
 ㉡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다.
 ㉢ 어머니께서 늦은 시간까지 거실에 계셨다.
 ㉣ 철호는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여쭙어 보았다.
 ㉤ 우리는 할아버지께서 과일을 잡수시기를 기다렸다.

[2점]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1.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포수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ㄴ. 토끼 한 마리가 포수에게 잡혔다.
 ㄷ. 아이가 옷을 입었다.
 ㄹ.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옷을 입히셨다.

[2점]

- ① ㄱ은 능동 표현이고, ㄴ은 피동 표현이다.
- ② ㄱ의 주어는 ㄴ에서 부사어로 나타나 있다.
- ③ ㄴ과 ㄹ에서 접미사 '-히-'가 결합된 두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로 동일하다.
- ④ ㄷ의 '입다'의 주체는 '아이'이고, ㄹ의 '입히다'의 주체는 '어머니'이다.
- ⑤ ㄹ의 '입히다'는 ㄷ의 '입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것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2. 다음은 부정 표현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의 부정 표현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선생님: 고향에 다녀왔니?

학생: 아니요.
 선생님: 고향에 다녀오지 못한 거니, 다녀오지 않은 거니?
 (나) 어머니: 이 꽃병은 만지지 마라.
 아들: 네. 안 만질게요.
 (다) 이 옷은 생각보다 예쁘지 않네.
 (라) 소현: 저 영화 보는 거 어때?
 철이: 우리 저 영화 보지 않았니?
 (마) 영수가 책을 안 샀다.

[2점]

- ① (가): 학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② (나): 명령문에는 평서문과 달리 부정 표현으로 '아니하다(않다)'가 사용되지 않는다.
- ③ (다): 의지 부정이나 능력 부정과 관계없는 상태 부정 표현에 해당한다.
- ④ (라): 부정 표현을 통해 '소현'과 이전에 영화를 함께 보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 ⑤ (마): 부정의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3. (나)를 고려하여 (가)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영수: 비가 오니 내일 소풍은 다 ㉠갔다.
 소연: 작년 소풍 전날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소풍날에는 비가 안 왔잖아.
 영수: 아, ㉢그랬지. 요새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 이럴 때 꼭 소풍을 가야 하는데…….
 소연: 맞아. 그런데 지금 몇 시야? 벌써 아홉 시네. 집에 일찍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엄마한테 ㉤흔났다.

(나) 국어사전 검색 결과: '-었-/-았-/-였-'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어미.

[2점]

- ① ㉠: 내일 소풍을 못 가게 될 것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 ② ㉡: 소풍 전날에 비가 온 것이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일임을 나타낸다.
- ③ ㉢: 대화 상대가 말한 내용이 발화시에 와서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 ④ ㉣: 꽃들이 예쁘게 핀 상태가 발화시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 엄마에게 혼날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4. 밑줄 친 부분이 피동사인 것은?

[2점]

- ① 그는 남들을 잘 웃겼다.
- ② 아이들이 얼음을 녹이고 있다.
- ③ 아무도 집 안으로 들이지 마라.
- ④ 나는 흰 눈으로 덮인 산을 바라본다.
- ⑤ 두 귀를 쫄긋 세우고 열심히 들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5. 다음은 국어의 문장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과제	국어 문장은 종결 어미의 형태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언어를 사용할 때 원래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 문장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탐구할 문장	ㄱ. (도서관에서 떠드는 친구에게) 시끄러워 공부 안 되네. ㄴ. (야외 활동 중 친구에게) 먹구름이 몰려오네. ㄷ.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에서) 김 대리는 안 추워? ㄹ. (교사가 제자를 나무라며) 너는 도대체 몇 살이니? ㅁ. (몹시 무더운 날 후배에게) 야, 정말 목이 타는구나!

[2점]

- ① ㄱ의 문장 종류는 평서문이지만 '조용히 해라.'는 명령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② ㄴ의 경우, 청자가 "그만 집으로 들어갈까?"라고 말했다면 청자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청유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 ③ ㄷ의 문장을 "김 대리, 에어컨 좀 꺼 줘."로 바꾼다면 문장의 종류와 기능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ㄹ의 경우, 청자가 "열아홉 살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청자는 화자가 말한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한다고 본 것이다.
- ⑤ ㅁ의 경우, 청자가 화자에게 물을 떠다 주었다면 청자는 화자가 말한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다름을 알고 있는 것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6.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 보자.

- (1) 저기 앞에 가는 철수를 불러라.
- (2) 내일은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 (3) 어제 읽은 책은 무척이나 감명 깊었다.
- (4) 예쁜 꽃을 보니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 (5) 열심히 공부해서 꼭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7.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 쓰인 높임 표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높임법: 서술의 주체(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 • 상대 높임법: 화자가 청자, 즉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 객체 높임법: 서술의 객체(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를 높이는 방법
보기2	ㄱ. 그녀가 할머니께 모자를 사 드렸다. ㄴ. 삼촌께서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보인다. ㄷ. 엄마, 숙부께서 할아버지를 빙자고 하시네요. ㄹ. 선생님, 이번에는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2점]

- ① ㄱ의 '드렸다'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
- ② ㄴ과 ㄷ의 '께서'와 '-시오'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
- ③ ㄷ의 '빙자고'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
- ④ ㄷ의 '요'와 ㄹ의 '-십시오'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
- ⑤ ㄹ의 '말씀'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낮춘 것이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8.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업 게시판>	
[질문]	오늘 어떤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일기에 쓰려고 하는데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고 써야 할지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개가 사람을 물었다.'와 같이 주어가 동작을 제형으로 하는 것을 능동,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와 같이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능동문을 쓸지 피동문을 쓸지는 어떤 대상에 초점을 돌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나타나는 피동적주에 초점이 가게 됩니다.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쓰면 '사람'에게 초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피동문을 쓰면 동작주의 동작성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즉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쓰면 '사람이 물린' 상황보다는 '개'의 행위가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9.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예에 해당하는 문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우리말에서 능동문(能動文)은 대개 피동문(被動文)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u>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어 쓰면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다.</u>
보기
ㄱ. 한솔이는 옥을 먹었다. ㄴ. 민석이는 동생을 안았다. ㄷ. 지현이가 승찬이를 잡았다. ㄹ. 동훈이가 고기 맛을 보았다.

[2점]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0. 다음은 '시제'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하고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라고 하는데, 사건시와 발화시의 선후 관계는 '>, =, <'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인 경우는 '사건시 > 발화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문장의 경우는 어떠한지 부등호 혹은 등호로 표시해 보자. (1) 내 동생은 지금 바깥에서 공을 찬다. → 사건시 [a] 발화시 (2) 지난주 일요일에 우리 가족은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 사건시 [b] 발화시 (3) 우리는 내일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칠 것이다. → 사건시 [c] 발화시

- (a) (b) (c)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1.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여기가 내가 자주 다니던 영화관이다. / 여기가 내가 자주 다닌 영화관이다.
 ㄴ. 하던 일을 마저 해치우자.
 ㄷ. *어머님이 출생하시던 곳은 바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ㄹ. 바람에 쓰러지던 나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 바람에 쓰러졌던 나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ㅁ. 즐겁던 그 시절이 그리구나. / 즐거웠던 그 시절이 그리구나.
 * : 비문법적임을 표시함.

[2점]

- ① ㄱ으로 보아, '-던'과 '-니'는 과거의 일에 쓰일 수 있군.
- ② ㄴ으로 보아, '-던'은 하다가 중단된 일을 나타낼 수 있군.
- ③ ㄷ으로 보아, '-던'은 과거에 완료된 일회성 행위에 쓰일 수 없군.
- ④ ㄹ로 보아, '-었던'은 '-던'에 비해 일이 완결된 상황을 나타낼 수 있군.
- ⑤ ㅁ으로 보아, '-었던'은 '-던'과는 달리 어떤 기간에 벌어진 일을 나타내는 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2. 다음 대화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 과장'과 '김 과장'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상황 1] 식당에서
 김 과장 : 승진 축하해. 지금 속도라면 자네가 나보다 빨리 부장이 되겠어.
 박 과장 : 아이, 선배님도. 이번엔 운이 좋아서 된 거지 항상 이렇겠어요?
 김 과장 : 그나저나 한턱 근사하게 내야지.
 박 과장 : 그럼요. 저도 기분 한번 내야지요.
[상황 2] 회의실에서
 최 사장 : 늦어서 미안하네요. 어서 시작하지요.
 김 과장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과장님께서 이번 시장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까.
 박 과장 : 영업부의 박○○입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께서서는 화면 조정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 : 네, 신호를 보내시면 제가 여기에서 스위치를 작동하겠습니다.

[2점]

- ① [상황 1]과 [상황 2]를 비교하여 볼 때, 상황의 차이가 동일 인물에 대한 호칭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상황 1]과 [상황 2]를 비교하여 볼 때, 높임 표현은 화자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③ [상황 1]의 '자네'와 '선배'라는 호칭을 통해, '김 과장'과 '박 과장' 사이에 연령이나 경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상황 2]에서는 '김 과장'과 '박 과장'의 직급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 간 동등한 수준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상황 1]과 [상황 2]에서 '박 과장'과 '최 사장'이 사용한 높임 표현은 대화 참여자에 대한 친밀감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3.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정도가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것은?

영수는 빨간색을 좋아하니, 파란색을 좋아하니?

[2점]

- ① 자리에 앉게.

- ② 자리에 앉으오.
- ③ 자리에 앉아라.
- ④ 자리에 앉아요.
- 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4. <보기>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사에는 어떤 동작을 스스로 하는 주동사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사가 있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면 된다.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 때는 접미사 '-이-', '-히-', '-기-', '-리-', '-우-', '-구-', '-추-' 등을 사용한다.
 ㉠ (주동문) 동생이 온다. ⇒ (사동문) 형이 동생을 올린다.
 ㉡ (주동문) 동생이 웃을 입는다. ⇒ (사동문) 엄마가 동생에게 웃을 입힌다.

[2점]

- ①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군.
- ② 목적어를 가진 주동문만 사동문으로 만들 수 있겠군.
- ③ ㉠은 ㉡과 다른 접미사를 사용하여 사동문을 만들었군.
- ④ 사동문에서는 주동문과 다른 새로운 동작 주체가 나타나는군.
- ⑤ 주동문의 동작 주체가 사동문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5. <보기>를 바탕으로 종결 어미 '-대'와 '-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민정이는 몸이 아파서 오늘 못 온대.
 ㄴ. 소문에 의하면 동호가 전교 1등이래.
 ㄷ.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영화 참 재미있대.
 ㄹ. 지난 수업 때 보니, 영희는 발표를 참 잘하데.

[2점]

- ① ㄱ에서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볼 수 있겠군.
- ② ㄴ에서 '-래'는 ㄱ, ㄷ의 '-대'와 같은 의미로 쓰였군.
- ③ ㄷ에서 '-대'는 남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군.
- ④ ㄷ에서 '-대'는 '-더러'와 바꿔 쓸 수 있겠군.
- ⑤ ㄹ에서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6. <보기>를 참고하여 피동 표현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어지다'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

[2점]

- ① '그녀의 웃음소리는 참 간드러졌다.'에는 '-어지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② '그가 개에게 엉덩이를 물렸다.'에는 피동 접미사 '-리-'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③ '그는 얼굴을 고양이에게 긁혔다.'에는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④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담겨 있다.'에는 피동 접미사 '-기-'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⑤ '어려운 시기를 넘기더니 그는 완전히 새사람으로 뒤바뀌어 있었다.'에는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7. <보기>의 '이중 피동'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被動文)이라 하는데, 피동사는 능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 만들어지기도 하고, '-되다', '-어지다', '-게 되다'가 붙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중 피동은 이러한 피동 표현이 겹쳐 사용된 것을 의미하는데, 어법에 어긋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점]

- ① 그의 말이 아직도 밀려지지 않는다.
- ② 그 길은 소나무 숲에 가려져 있었다.
- ③ 그곳에서는 고기가 정말 잘 잡혀진다.
- ④ 내일은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되어진다.
- ⑤ 그 일 이후 그녀가 매우 가련하게 보여졌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8. 다음 대화 중 주체 높임 표현이 쓰이지 않은 것은?

ㄱ. 지선 :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디 가셨나요?
 ㄴ. 수지 : 독감 때문에 병원 가신다고 아까 나가셨어요.
 ㄷ. 지선 : 맞다, 며칠 전부터 편찮으시다고 하셨지.
 ㄹ. 수지 : 연세가 많으셔서 더 힘드신가 봐요.
 ㅁ. 지선 :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독감도 쉽게 낫는다니 다행이지요.

[2점]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9. 다음 중 <보기>의 ㉠이 사용된 것은?

보기
말할 때 화자와 청자와 말하는 대상의 관계에 따라 높임 관계를 달리 표현하는 것을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높임 표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 표현, 화자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 그리고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 있다. 높임 표현은 선어말 어미 '-(으)시-', 조사 '께서, 께', 특수한 어휘 '계시다, 드리다' 등이나 다양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2점]

- ① 내일은 늦지 말고 오너라.
- ②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③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④ 아버지가 마루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 ⑤ 영수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0.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피동 표현의 유형이 같은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1
○ 피동 표현: 주어가 남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일을 표현한 것
 • 파생적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 등을 붙이는 경우
 • 통사적 피동: 서술어에 '-아/어지다'를 붙이는 경우
 • 어휘적 피동: 단어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갖는 경우

보기 2
ㄱ. 고전은 시대를 초월해 읽힌다.
 ㄴ. 적군에 의해 다리가 끊어졌다.
 ㄷ. 그가 옛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ㄹ. 동생의 손에 가방이 들려 있었다.

[2점]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1. ㉠~㉣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종업원 : 손님, ㉠발이 정말 예쁘세요.
 손님 : 그래요? ㉡고마워요.
 종업원 : ㉢이 신발이 손님께 잘 어울리겠어요.
 손님 : 정말요? ㉣그럼 이걸로 살게요.
 종업원 : 발 크기가 어떻게 되세요?
 손님 : 240mm요.
 종업원 : (한참 찾더니) 손님, 죄송합니다. ㉤그 크기의 상품은 다 떨어지셨네요.

[2점]

- ① ㉠ : 서술어에 '-세요'를 썼으므로 주어에 '께서'를 붙여야 한다.
- ② ㉡ : 생략된 주어를 높이기 위해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 ③ ㉢ : 객체인 '손님께'를 높이기 위해 '-시-'를 써야만 한다.
- ④ ㉣ : 대화 상대방을 높일 필요가 없으므로 '요'를 빼야 한다.
- ⑤ ㉤ :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를 쓰지 말아야 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2. 각 예문에 해당하는 문장 종결 표현을 골라 바르게 연결해 보자.

- ① 평서문 • ㉠ 형, 그렇게 무리하다가 병나겠어.
- ② 감탄문 • ㉡ 다음 열차는 몇 시에 도착합니까?
- ③ 의문문 • ㉢ 철수는 노래도 잘 부르는구나.
- ④ 명령문 • ㉣ 집에 일찍 들어가라.
- ⑤ 청유문 • ㉤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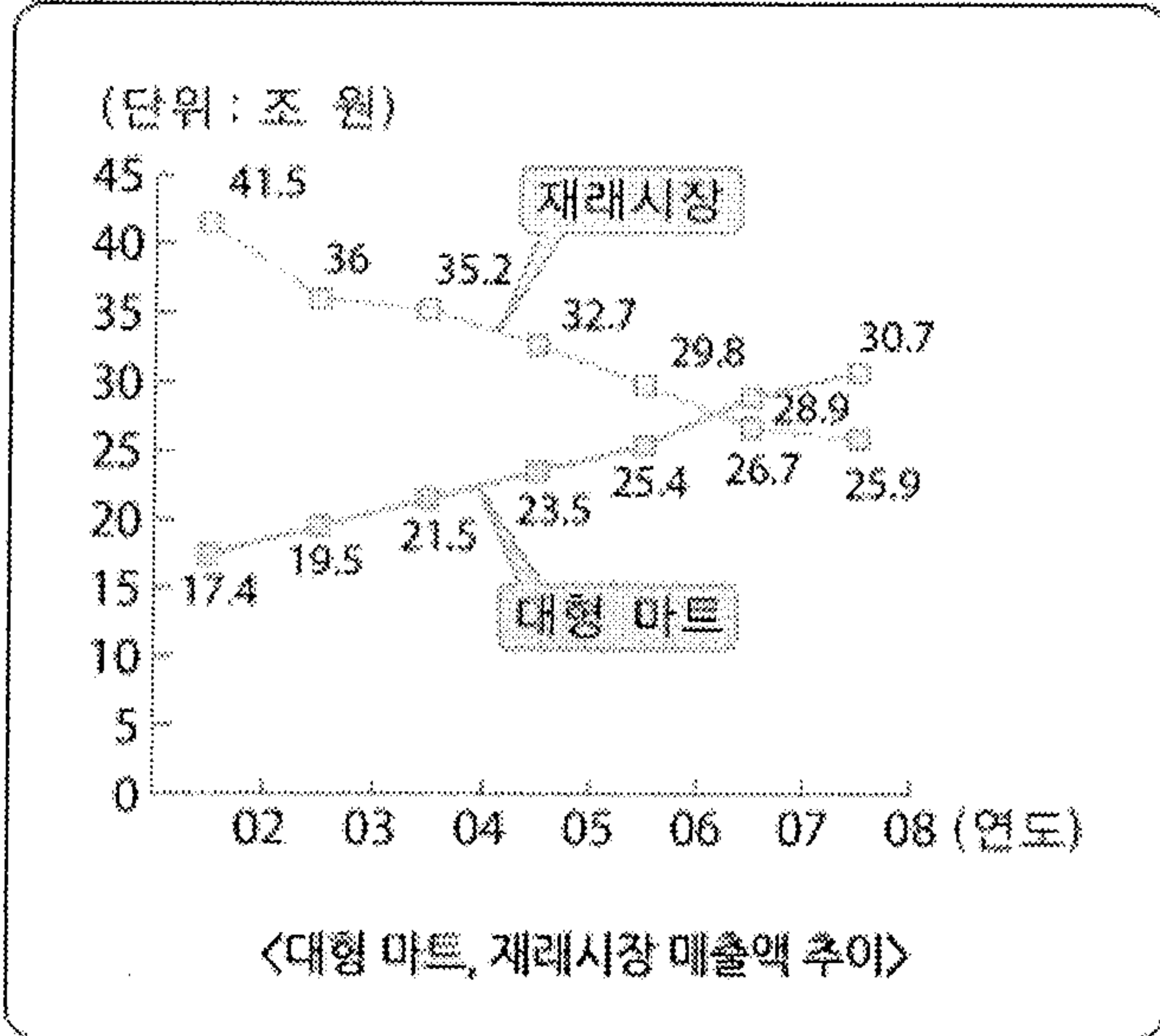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수확 체증'의 특징은 일단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잘 나가는 반면 한 번 실패한 것은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치열한 경쟁을 하던 제품이나 기업이 행운에 의해서든 아니면 우수한 전략에 의해서든 일단 시장 지배에 성공하고 나면 수확 체증의 메커니즘에 따라 그 우위성은 더욱 ㉠확대되어지고 그 제품과 기업은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나)



○○구청 관계자 : 지난 2002년부터 대형 마트가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현재는 대형 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확장으로 인해 골목 상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매주 월요일에 저희 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대형 마트의 영업에 대해 저희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령 개정이나 중앙 정부의 정책 등이 없이는 저희도 지금의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 ○○구청 관계자 인터뷰

83. 문장 표현상, ㉠과 같은 유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문장은?

[2점]

- ① 아버지는 식탁에서 서재로 옮기고 있다.
- ② 이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렸다.
- ③ 경찰관이 앞서 가던 차량을 정지시키게 했다.
- ④ 다음 주까지 이 책을 절대로 다 읽어야 한다.
- ⑤ 보도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4. <보기>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능동문	피동문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김 형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에 의해 밝혀졌다.
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 명에게 잡혔다.

[2점]

- ① 목적어를 가지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수 있군.
- ②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를 함께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군.
- ③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 능동문의 주어에 해당하는 말에 부사격 조사가 붙는군.
- ④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 능동문과 피동문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군.
- ⑤ 피동 표현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5. (가)를 참고할 때 (나)의 대화에서 ㉠~㉤의 기본형 '들다'가 국어사전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표제어로 처리되는 것은?

(가) 들다 ㉠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 ㉡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 ㉢ 과일, 음식의 맛 따위가 익어서 알맞게 되다. ㉣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

들다 ㉠ 날이 날카로워 물건이 잘 베어지다. ㉡ 솜을 같은 기계가 먹이는 원료를 쉽게 받아들여 처리하다.

들다 ㉠ 손에 가지다. ㉡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

(나) 손님 : 칼 좀 갈아 주세요. 날이 잘 안 ㉠들어요.

고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주인 : 음, 이걸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손님 : 그 말이 아니고요, 돈이 얼마나 ㉢들까요?

주인 : 아, 예. 4천 원요.

손님 :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깎아 주세요.

주인 : 그럼 3천 원에 해 드릴게요.

손님 : 고맙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내일 찾으러 올게요.

주인 : 그러세요, 내일 보시면 아마 마음에 쏙 ㉤들 겁니다.

[2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6. <보기>의 ㉠~㉤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반의어 중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어는 동시 부정이 가능하며 중간 지대가 존재한다. '쉽다/어렵다'를 예로 들면 '쉽지 않다/어렵지 않다'가 가능하고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가 가능한 것이다.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어는 동시 긍정이 불가능하며 완전히 반으로 쪼개진다. 한편 '출발/도착' 등과 같이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어도 존재한다.

[2점]

- ① ㉠: 달다/쓰다 ② ㉠: 덥다/춥다
- ③ ㉡: 삶/죽음 ④ ㉡: 길다/짧다
- ⑤ ㉢: 들어가다/나오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7.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보기
• 다의 관계: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관계. 두 단어의 의미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
(예) 손 - ㄱ. 손이 작다.(신체 일부)
 ㄴ. 손이 부족하다.(일손)
• 동음이의 관계: 두 단어가 소리는 같으나 다른 의미를 가지는 관계. 두 단어의 의미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
(예) 손 - ㄱ. 손이 작다.(신체 일부)
 ㄴ. 손을 맞이하다.(손님)

[2점]

- ① 바람이 무척 차다.
 힘차게 공을 차다.
- ② 그녀가 물건을 훔치다.
 행주로 식탁을 훔치다.
- ③ 어제 저녁부터 배가 아팠다.
 그가 타자마자 배가 떠났다.
- ④ 칼이 잘 들어 요리하기가 편했다.
 건넌방은 벌이 잘 들어 따뜻하다.

- ⑤ 삼촌이 다리를 절룩거리며 집에 갔다.
멀쩡해 보였던 책상 다리가 부러졌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8. <보기>에 제시된 문장의 중의성을 []에 제시된 의미나 상황에 맞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이것은 아버지의 그림이다. [그림에 아버지가 그려져 있음.]
 b. 내 친구와 그녀가 올해 결혼하였다. [올해 둘이 서로 결혼함.]
 c.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몇 사람은 오지 않았음.]
 d. 그가 웃는 것이 이상하다. [그가 웃는다는 사실이 이상함.]
 e.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그녀의 표정이 밝음.]

[2점]

- ① a: '-의'를 '-를 그린'으로 교체한다.
- ② b: '-와'와 '-가'를 서로 교체한다.
- ③ c: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꾼다.
- ④ d: '것'을 '-다는 것'으로 바꾼다.
- ⑤ e: '밝은 표정으로'를 '사람들에게'의 뒤로 옮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9. <보기>는 '부르다'의 뜻풀이 중 일부이다. 이를 활용한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부르다¹ 「동사」 활용 정보: 불러, 부르니

[1] 【...을】

「1」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 지나가는 친구를 큰 소리로 불렀다.
 「2」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 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하다.
 ¶ 출석을 부른다.
 「3」 남이 자신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게 또박또박 읽다.
 ¶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

[2] 【...을 ...에】 【...을 ...으로】 청하여 오게 하다.
 ¶ 의사를 집에 부른다.

[3] 【...을 ...으로】 【...을 -고】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 앞으로 우리는 그를 형님으로 부르면서 깍듯이 대접할 것이다.

부르다² 「형용사」 활용 정보: 불러, 부르니

【...이】

「1」 (주로 '배'와 함께 쓰여) 먹은 것이 많아 속이 꼭 찬 느낌이 들다.
 ¶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었다.
 「2」 불룩하게 부풀어 있다.
 ¶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른다.

[2점]

- ① 동사로 쓰인 '부르다¹'과 형용사로 쓰인 '부르다²'는 동음이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로군.
- ② '부르다¹'은 '부르다²'와 달리 문장 구조상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군.
- ③ '부르다¹'과 '부르다²'의 활용 정보로 보아, '부르다'가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군.
- ④ '부르다¹'과 '부르다²'는 모두 다의어라고 말할 수 있겠군.
- ⑤ '배가 부른 향아리가 놓여 있다.'는 '부르다²' 「2」의 예문으로 추가할 수 있겠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0.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단어는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각각의 맥락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버스에 서서 갔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앉다'이지만, '시계가 고장이 나서 서 버렸다.'에서는 '가다'가 반의어이다.

단어	예문	반의어
돌다	시곱바늘이 돌고 있다.	멈추다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돈다.	㉠
	㉡	머물다
	이리로 가면 한참을 돌아서 가야 한다.	㉢

	㉠	㉡	㉢
①	떠다	그는 반대파에서 찬성파로 돌았다.	가르다
②	떠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며 음악을 들었다.	가르다
③	가시다	공장이 무리 없이 잘 돌고 있다.	가르다
④	가시다	그는 이곳저곳을 돌면서 물건을 팔았다.	가르다
⑤	가시다	그 집은 모퉁이를 돌면 바로 나온다.	가르다

[2점]

-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1. 다음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말다¹ [말아, 마니, 마오] **동**

① 【...을】 넓직한 물건을 돌돌 감아 원통형으로 겹치게 하다.
 ¶ 멍석을 말다/침구를 말아 구석에 밀어 놓다.

② 【...을 ...에】 【...을 ...으로】 종이나 김 따위의 얇고 넓은 물건에 내용물을 넣고 돌돌 감아 싸다.
 ¶ 돈봉치를 신문지에 말다/종세는 골목길에 서서 훑쳐 가지고 온 영업초를 종이로 말아 피웠다.

말다² [말아, 마니, 마오] **동**

【...을】 【...을 ...에】 밥이나 국수 따위를 물이나 국물에 넣어서 풀다.
 ¶ 국수를 말다/밥을 국에 말다.

[2점]

- ① '말다¹'과 '말다²'는 품사와 발음이 일치한다.
- ② '말다¹'은 다의어이지만 '말다²'는 다의어가 아니다.
- ③ '말다¹'과 '말다²'는 서로 동음이의어의 관계에 있다.
- ④ '말다¹'과 '말다²'가 쓰인 문장은 나타나는 조사가 동일하다.
- ⑤ '말다¹'과 '말다²'는 모두 주어 이외에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2. 다음은 '들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한 것은?

들다¹ **동** 【...에】

㉠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 사랑채에 들다.

㉡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
 ¶ 잔치 음식에는 품이 많이 든다.

[속담] 드는 줄은 몰라도 나는 줄은 안다. → 사람이나 재물이 붙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아도 그것이 줄어드는 것은 곧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

들다2 [동] […을]
 ㉠ 손에 가지다.
 * 신부는 손에 꽃을 들고 앉아 있다.
 [속담] 들고 나니 초롱꾼 → 초롱을 들고 있으면 초롱꾼(초롱을 들고 가며 방길을 밝혀 주는 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어떤 일이고 다 할 수 있다는 말.

[2점]

- ① '들다1'과 '들다2'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있겠군.
- ② '들다1' ㉠의 뜻을 살려서 '들어서다', '들어오다'와 같은 합성어가 만들어졌겠군.
- ③ '들다1' ㉠ 뜻의 용례로 '전국에 풍년이 들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들다2' ㉠ 뜻의 유의어로는 '올리다'가 가능하겠군.
- ⑤ '들다1'과 '들다2'에서 쓰인 속담은 모두 '들다'와 '나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겠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3. <보기>를 바탕으로 '갈다'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갈다 [동] […을 …으로]
 ㉠

[예] 컴퓨터의 부속품을 새 것으로 갈았다.
 ㉡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예] 책임자를 전문가로 갈았다.

갈다² [동] […을]
 ㉢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 건에 대고 문지르다.
 [예] 기계로 옥을 갈아 구슬을 만들었다.
 ㉣ 잘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
 [예] 멧돌에 녹두를 갈았다.

갈다³ [동] […을]
 ㉤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
 [예] 경운기로 논도 갈고 지게질로 객토도 했다.

[2점]

- ① '갈다1'과 '갈다2'와 '갈다3'은 발음이 같을 뿐 별개의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음이의어 관계이겠군.
- ② '갈다1'의 ㉠에 들어갈 뜻은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이겠군.
- ③ '갈다2' ㉢의 용례로, '숫돌에다 칼을 갈았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갈다2' ㉣의 뜻과 '자면서 뽀드득뽀드득 이를 갈다.'의 '갈다'는 서로 뜻이 같겠군.
- ⑤ '갈다3' ㉤의 유의어로 '일구다'를 사용할 수 있겠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 반의 관계의 성립 요건
 반의 관계는 두 단어 사이에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상반될 때 성립된다.
 (예) '남자'와 '여자'의 경우, [사람]이라는 공통된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성(性)]이라는 단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상반되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
 • 반의 관계의 유형
 반의 관계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없이 대립하는 '모순 관계'와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는 '반대 관계'로 나눌 수 있다. 또 두 단어 사이에서

서로 상대적 관계가 성립하는 '상대 관계'도 있다.
 (예) '살'과 '죽음'은 중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모순 관계에 있으며, '춤'과 '덤다'는 중간 개념이 존재하는 반대 관계에 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경우는 X가 Y의 부모이면, Y가 X의 자식이 되므로 상대 관계가 성립된다.
 • 다의어의 반의 관계
 다의어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닌 다양한 의미에 따라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도 달라진다.
 (예) '(운동장을) 뛰다'의 반의어는 '걸다'이지만, '(물가가) 뛰다'의 반의어는 '내리다'이다.

보기2
 ㉡ 남편 : 아내 ㉢ 국내 : 국외 ㉣ 많다 : 적다
 ㉠ 서다 : 앉다 ㉤ 주다 : 받다

[2점]

- ① ㉡는 모두 [인간, 부부]라는 공통된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성(性)]이라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상반되므로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
- ② ㉢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의 관계 중 모순 관계가 성립된다.
- ③ ㉣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므로 반의 관계 중 반대 관계가 성립된다.
- ④ ㉠의 '서다'가 '멈추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 '서다'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로는 '가다'를 들 수 있다.
- ⑤ ㉤는 ㉡와 달리 두 단어 사이에서 서로 상대적인 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므로 반의 관계 중 상대 관계가 성립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5. 다음은 '치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다 [동] […을]
 ㉠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게 닿거나 부딪게 하다.
 * 날아오는 공을 치다 / 주먹으로 얼굴을 치다.
 ㉡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다.
 * 손뼉을 치다 / 피아노를 치다.
 [속담] 치러 갔다가 맞기도 예사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려 갔다가 도리어 요구를 당하는 일도 흔치 있다는 말.

치다² [동] […을]
 ㉢ 가족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
 * 양을 치다 / 삼촌은 돼지를 쳐서 생계를 유지한다.
 ㉣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
 *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재첩 무성하다.

[2점]

- ① '치다1'과 '치다2'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겠군.
- ② '치다1' ㉠ 뜻의 유의어로는 '때리다'가 가능하겠군.
- ③ '치다1'의 속담은 '치다'와 '맞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④ '치다2' ㉢ 뜻을 보니 '아이를 기르다.'의 의미로 '아이를 치다.'를 쓸 수는 없겠군.
- ⑤ '치다2' ㉣ 뜻의 용례로 '농부가 낫으로 잔가지를 쳐 냐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6. <보기>의 언어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사례를 추가로 수집할 때, ㉠~㉣에 대응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신체를 가리키는 단어는 다양한 범주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의 '머리'는 신체의 일부를 가리키지만 ㉡의 '머리'는 '뭇'이라는 사물의

부분을 가리킨다. 또한 ㉠의 '머리'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의 '머리'는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끝으로, ㉢의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확장된 것이다.

- ㉠ 그는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 ㉡ 형은 옷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다.
- ㉢ 마을로 들어가는 길머리에 도착했다.
- ㉣ 그는 해질 머리가 되어서야 나타났다.
- ㉤ 그녀는 머리가 좋아서 어려운 내용도 금방 이해한다.

[2점]

- ① ㉠의 사례: 창밖으로 고개를 빼고 밖을 바라봤다.
- ② ㉡의 사례: 이 의자는 처음부터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 ③ ㉢의 사례: 태풍이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며 피해를 입혔다.
- ④ ㉣의 사례: 그는 밤 한 공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 치웠다.
- ⑤ ㉤의 사례: 노인은 회사 경영을 아들의 손에 맡기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7. 다음은 반의어에 대한 설명이다.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반의어는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 쌍의 단어를 말한다. 전통 논리학에서는 반의의 개념들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개념들 사이에서 겹침이 없이 쌍을 이루는 것으로 ㉠선언 개념(選言概念)이 있다. '동물'과 '식물' 같은 단어들이 여기에 속한다. 동물에 속하는 것은 동시에 식물에 속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개념들 사이에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상호 의존도가 큰 ㉡상관 개념, 상호 의존도가 작은 ㉢상대 개념이 있다. '스승'과 '제자'처럼 어느 한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들이 상관 개념에 속하며, '바다'와 '육지'처럼 어느 한쪽이 없다고 하여 다른 쪽이 반드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닌 단어들이 상대 개념에 속한다. 그리고 끝으로 중간적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모순 개념과 ㉤반대 개념으로 나뉜다. 중간적 존재가 없는 것을 모순 개념이라 하고, 중간적 존재가 있는 것을 반대 개념이라 한다. 모순 개념에는 '있음'과 '없음' 같은 단어들이 포함되며, 반대 개념에는 '크다'와 '작다' 같은 단어가 포함된다.

[2점]

- ① ㉠: '생물'과 '무생물'
- ② ㉡: '남편'과 '아내'
- ③ ㉢: '물'과 '불'
- ④ ㉣: '흰색'과 '검은색'
- ⑤ ㉤: '길다'와 '짧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8. <보기>의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오빠는 언니보다 나를 더 예뻐한다.
ㄴ. 어머니께서 사과와 굴 두 개를 주셨다.
ㄷ. 저기 있는 배를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ㄹ. 정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했다.
ㅁ. 그는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숨기었다.

[2점]

- ① ㄱ : '보다'를 통해 비교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 ② ㄴ : '주셨다'의 대상이 '사과'인지 '굴 두 개'인지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 ③ ㄷ : 동음이의어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 ④ ㄹ : '웃으면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 ⑤ ㅁ : 대명사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9. (가)를 바탕으로 (나)의 ㉠~㉤에 들어갈 말을 채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단어의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서서 왔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앉다'이지만 "체면이 서다"에서는 '깎이다'가 된다.

(나)

반의 관계		
적금을 들다	↔	적금을 (㉠)
생각이 깊다	↔	생각이 (㉡)
병이 나다	↔	병이 (㉢)
겉이 많다	↔	겉이 (㉣)
한을 품다	↔	한을 (㉤)

[2점]

- ① ㉠-깨다
- ② ㉡-짧다
- ③ ㉢-들다
- ④ ㉣-없다
- ⑤ ㉤-풀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0. <보기>에서 설명한 언어 현상이 나타난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자리에 착석(着席)하다.'는 의미가 불필요하게 중복된 표현이다. '착석(着席)'에 이미 '자리[席]'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다.' 정도로 써도 충분하다. 이런 현상은 흔히 고유어와 한자어를 함께 쓸 때에 발생하는데, 굳이 의미를 중복하여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다듬어 쓰는 것이 좋다.

- ㉠ 이 문제에 대해 짧은 소견(所見)을 밝히고자 한다.
- ㉡ 그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난관(難關)에 부딪혔다.
- ㉢ 그는 남은 여생(餘生)을 여행을 다니며 보내기로 결심했다.
- ㉣ 그들은 수많은 시도 끝에 오랜 숙원(宿願)을 이룰 수 있었다.
- ㉤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지에 미리 답사(踏査)를 다녀왔다.

[2점]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1~102] 다음 예문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 ㉡ 남편은 나보다 딸을 더 좋아한다.
- ㉢ 할머니께서 자두와 사과 두 개를 주셨다.
- ㉣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가 날 설레게 한다.
- ㉤ 그는 웃으면서 마주 오는 이웃에게 인사했다.

101. 위에 제시된 문장들의 의미가 중의성을 띠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않다'가 '다 오다'를 부정하는지 '오다'만을 부정하는지 불분명하다.

- ② ㉠ : '남편'과 '내'가 '딸'을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고 있는지 '나'와 '딸'을 비교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 ③ ㉡ :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사과'만인지 '자두와 사과'인지 불분명하다.
- ④ ㉢ : '아름다운'이 '그녀'를 꾸미는지 '미소'를 꾸미는지 불분명하다.
- ⑤ ㉣ : '웃으면서'가 '그는'의 서술어로 쓰인 것인지 '이웃'을 꾸미는 관형절 속에서 쓰인 것인지 불분명하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2. ㉠~㉣의 문장을 다듬어 중의성을 해소하려고 한다. 적절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친구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 ② ㉡ : 나는 남편보다 딸을 좋아한다.
- ③ ㉢ : 할머니께서 자두 한 개와 사과 한 개를 주셨다.
- ④ ㉣ :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가 날 설레게 한다.
- ⑤ ㉣ : 그는 마주 오는 이웃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3. 다음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해 보자.

- (1) 80대 이상의 어른들 말은 10대 청소년들의 말과 상당히 다르다. ()
- (2) 제주도 말에는 예전의 '·(아래아)'에 해당하는 모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
- (3) 남자들이 쓰는 말과 여자들이 쓰는 말에는 차이가 있다. ()
- (4)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술'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 ()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4.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참조하여 이중 모음의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표준 발음법 제5항 'ㅈ ㅊ ㅋ ㆁ ㄷ ㄱ ㅌ ㄴ ㄹ ㄷ ㅌ ㄴ ㄹ'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는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2점]

- ① '다만 1'에 따라, "살이 찌서 고생이다."의 '찌'는 [찌]로 발음해야 한다.
- ② '다만 2'에 따라, '주례사(主禮辭)'는 [주례사]가 아닌 [주례사]로 발음해야 한다.
- ③ '다만 3'에 따라, "모자를 씌웠다."의 '씩'는 [씩]와 [씨]로 모두 발음해도 된다.
- ④ '다만 4'에 따라, "거의 다 왔다."의 '거의'는 [거의]와 [거이]로 모두 발음해도 된다.
- ⑤ '다만 4'에 따라, '우리의 소원'의 '우리의'는 [우리의]나 [우리에]로 모두 발음해도 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5. <보기 1>의 표준 발음법 규정을 참조하여 <보기 2>의 밑줄 친 단어의 발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제13항 <u>출발</u> 침이나 <u>쌍발</u> 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깎아[까까] 있어[이씨] 낮이[나지] 제14항 <u>겹발</u> 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낮이[넉씨] 얹아[안자] 값울[갑쓸]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젓어미[저더미] 맛었다[마덟다] 헛웃음[허두슴]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불임] <u>겹발</u> 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녀 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ㆁ, ㅌ, ㄴ, ㄹ'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글을[디그슬] 지웃을[지으슬] 치웃을[치으슬] 키윽을[키으글] 티윽을[티으슬] 피윽을[피으블] 히윽을[히으슬]

보기 2 • <u>닭</u> 을 살피러 나갈 때는 <u>겉</u> 옷만이라도 단단히 입어라. • 그 <u>웃</u> 이 그 정도의 <u>값</u> 어치가 있을까? • <u>티</u> 윽과 <u>디</u> 글은 같은 위치에서 발음된다.
--

[2점]

- ① 제14항에 따라 '닭'은 겹받침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을'과 결합되는 경우로 뒤엣것을 옮겨 [다글]로 발음한다.
- ② 제15항에 따라 '겉'은 받침 'ㅌ' 뒤에 모음 'ㅓ'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로, 'ㅌ'을 대표음인 'ㄷ'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거돋]으로 발음한다.
- ③ 제13항에 따라 '웃'은 출발침 'ㅅ'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와 결합되는 경우로, 자기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오씨]로 발음한다.
- ④ 제15항의 [불임]에 따라 '값'은 겹받침 'ㅃ' 뒤에 모음 'ㅑ'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와 연결되는 경우로, 겹받침 중 하나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가버치]로 발음한다.
- ⑤ 제16항에 따라 한글 자모의 이름인 '디글'은 특별히 [디그슬]로 발음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6~107](가)는 발음 오류를 지적한 것이고, (나)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대한 설명이다. 잘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ㄱ. '흙이, 흙을'을 [흐기], [흐글]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ㄴ. '넓다, 넓고'를 [넙따], [넙꼬]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에 어긋난다. ㄷ. 접미사 '-님'이 결합된 '해님'을 [해님]으로 발음하면 안 된다. (나) a.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b. 접미사가 결합할 때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c. 받침 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허용한다. d.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e.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오면 자음을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한다.
--

106. (가)에 제시된 발음 오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나)에서 골라 보자.

- (1) (가) ㄱ → (나) ___
- (2) (가) ㄴ → (나) ___
- (3) (가) ㄷ → (나) ___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7. (가)의 ㄱ, ㄴ, ㄷ을 올바른 발음으로 고친 결과가 모두 옳은 것은?

	ㄱ	ㄴ	ㄷ
①	[홀기], [홀글]	[넙다], [넙고]	[햐님]
②	[흐키], [흐글]	[넙따], [넙꼬]	[햐님]
③	[흐키], [흐글]	[넙다], [넙고]	[햐님]
④	[홀기], [홀글]	[넙따], [넙꼬]	[햐님]
⑤	[홀기], [홀글]	[넙따], [넙꼬]	[햐님]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8. 다음은 '표준 발음법'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ㄱ)~(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준 발음법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갈 곳[갈곶]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예) 할걸[할겅],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세라]
 <보충 해설>
 • '-(으)ㄹ' 다음에 오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보조 용언일 경우에도 역시 그 다음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던' 등 'ㄴ' 받침을 가진 어미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질문	답변
'할 도리'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요?	[할또리]입니다. 하지만 [할도리]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됩니다....(ㄱ)
'먹을게'는 [머글께]로 발음하는 것이 맞나요?	예, [머글께]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ㄴ)
'올 뜻하다'의 표준 발음은 [올뜨타다]가 맞나요?	아니요, [올드타다]로 발음해야 합니다....(ㄷ)
'간 사람'은 어떻게 발음해야 하나요?	[간사람]으로 발음해야 합니다....(ㄹ)
'할 것을'에서 '것을'은 반드시 [꺼슬]로 발음해야 하나요?	아니요, 끊어서 말할 적에는 [거슬]로 발음해야 합니다....(ㄴ)

[2점]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ㄴ)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9. 다음 제시된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제기	'ㅏ, ㅑ, ㅓ, ㅕ'로 끝난 어간에 '-이-'와 '-어'가 어울린 말은 어떻게 줄여 적을까?
가설 설정	'ㅏ, ㅑ, ㅓ, ㅕ'로 끝난 어간에 '-이-'와 '-어'가 어울려 줄여질 적에는 준 대로 적을 것이다.
가설 검증	㉠

원리 도출	'ㅏ, ㅑ, ㅓ, ㅕ'로 끝난 어간에 '-이-'와 '-어'가 어울려 줄여질 적에는 'ㅏ, ㅑ, ㅓ, ㅕ'를 'ㅐ, ㅑ, ㅕ, ㅓ'로 적은 뒤 '-어'를 붙이거나, '-이-'와 '-어'를 '어'로 줄여 적는다.
일반화	도출된 원리는 '파이어', '쏘이어', '쓰이어'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보기

- ㄱ. 물건이 보자기에 싸이어 있었다. → 싸어, 싸여
- ㄴ. 산봉우리가 보이어 기분이 좋아졌다. → 뵈어, 보어
- ㄷ. 아이에게 오줌을 누이어 재우도록 해라. → 뉘어, 누어
- ㄹ. 이 부분은 같은 간격으로 뜨이어 쓰는 것이 좋겠다. → 띄어, 띠어

[2점]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0. 다음은 겹받침 'ㄹ'과 'ㄷ'의 발음에 관해 영미가 필기한 내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미의 공책]		
대원칙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 (㉠) 예) 닥다[닥따], 앓다[안따], 있다[ㅣ따], 외곶[외곶], 꺾다[꺾 : 따], 값[갑], 강[강]	
기본 원칙	겹받침 'ㄹ'... (㉡) 예) 여덟[여덟], 넓다[널따], 넓고[널꼬]	겹받침 'ㄷ'... (㉢) 예) 읽다[익따], 맑지[막지], 흥[흥], 흥과[흥과]
예외	'ㄹ'의 경우... (㉣) 예) 밭고[밭 : 꼬], 밭지[밭 : 짜]	용언 어간의 겹받침 'ㄷ'... (㉤) 예) 읽고[일꼬], 맑기[말끼], 뽕고[뽕꼬]
	'ㄷ'의 경우 예) 넓죽하다[넙쭈카다], 넙동글다[넙똥글다]	

[2점]

- ① ㉠: 'ㄱ, ㄴ, ㄷ, ㄹ, ㅁ, ㅂ, ㅅ'의 일곱 개
- ② ㉡: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
- ③ ㉢: 자음 앞에서 [밭 :]으로 발음
- ④ ㉣: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
- ⑤ ㉤: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 ㉠~㉣의 발음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표준 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3항 출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보기

- 밭 짓는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 왔다.
- 강아지가 부엌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 새로 이사한 집은 부엌이[㉢] 넓어서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

- ㉠
- ㉡
- ㉢

[2점]

- ① 부어께서 부어칸 부어키
- ② 부어께서 부어칸 부어기
- ③ 부어께서 부어간 부어키
- ④ 부어께서 부어간 부어기
- ⑤ 부어께서 부어간 부어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2. <보기>의 규정을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ㅈ, ㅊ, ㅋ, ㆁ,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예) 다치어 → 다쳐[다쳐]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한다. 예) 계집[계 : 집/계 : 집]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예) 희망[희망]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한다. 예) 협의[허口/허비], 강의의[강 : 의의/강 : 이에]

[2점]

- ① 전자시계: [시계]로 발음해도 되고, [시계]로 발음해도 상관없겠군.
- ② 민주주의: [주의]로 발음해도 되고, [주이]로 발음해도 상관없겠군.
- ③ 유희적 태도: [유희]로 발음해도 되고, [유히]로 발음해도 상관없겠군.
- ④ 우리의 집: [우리의]로 발음해도 되고, [우리에]로 발음해도 상관없겠군.
- ⑤ 가져갈 물건: [가져]로 발음해서는 안 되고, [가저]로 발음해야만 하겠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3. <보기>는 표준 발음법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주어진 단어의 발음을 적은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 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 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 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2점]

- ① 부엌 안[부어칸] ② 발 아래[바다래]
- ③ 꽃 안[꼬단] ④ 젓어미[저더미]
- ⑤ 늪 앞[느밭]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4. <보기>는 표준 발음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ㅎ'의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ㅎ(ㄷ, ㄹ)'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붙임] 받침 'ㄱ(ㄱ), ㄷ, ㄹ(ㄹ), ㅈ(ㅈ)'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2.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붙임] 'ㄷ, ㄹ'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다만 'ㄷ' 뒤에서는 'ㄴ'이 [ㄷ]로 발음된다.
 3. 'ㅎ(ㄷ,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2점]

- ① 그렇게 많던[만 : 턴] 일이 이제 끝났어.
- ② 이 학교에 입학[입학]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③ 사람마다 물건을 놓는[논는] 방식이 다르더라고.
- ④ 이상하게도 점심 식사 후에 속이 부글부글 끓네[끓네].
- ⑤ 좋지 않은 습관을 끊는[끄는] 뒤부터는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5. (ㄱ)은 남한과 북한 사전의 자모음 배열 순서이다. 이를 참고하여 (ㄴ)의 단어들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남한	북한
자음자	ㄱ, ㅋ,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ㅊ, ㅆ, ㅃ, ㅆ
모음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ㄴ) 향기, 깨, 이름, 행동	남한	북한
①	깨, 이름, 행동, 향기	향기, 행동, 깨, 이름
②	깨, 이름, 행동, 향기	향기, 행동, 이름, 깨
③	깨, 이름, 행동, 향기	향기, 이름, 깨, 행동
④	이름, 향기, 행동, 깨	향기, 이름, 깨, 행동
⑤	이름, 향기, 행동, 깨	향기, 행동, 깨, 이름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6. <보기>는 남한과 북한의 어문 규정 일부이다. 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남한의 '표준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ㅁ, ㅂ]으로 발음한다.
 예) 낫[낙] 앓다[안따] 났고[널꼬] 외곶[외곶] 활다[할따] 값진[갑진]
 다만, '뉘-'은 자음 앞에서 [뉘]로 발음하고, '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뉘]로 발음한다.
 (1) 뉘소[뉘 : 쏘] 뉘지[뉘 : 지] 뉘는[뉘 : 는 → 뉘 : 는] 뉘게[뉘 : 게] 뉘고[뉘 : 꼬]
 (2) 뉘-죽하다[뉘쭈카다] 뉘-동글다[뉘똥글다]

❖ 북한의 '문화어발음법'

제9항 받침자모와 받침소리의 호상관계*는 다음과 같다.

- 받침 <ㄱ, ㄴ, ㅋ, ㆁ>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ㄱ]으로 발음한다.
예: 낫살 [낙살] 붓다 [복따] 부엌세간 [부억세간] 낫시 [낙시]
- 받침 <ㄷ, ㄸ, ㅌ, ㅍ>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ㅍ]으로 발음한다.
예: 밭다 [밭따] 읊다 [읍따] 었다 [업따] 높다 [놈따]

그러나 받침 <ㄹ>은 그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붙이*가 올 때는 [ㄹ]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덟>은 [여덜]로 발음한다.
예: 넓고넓은 [널꼬널븐] 넓구나 [널꾸나]

* 호상관계: 상호 관계.
* 무성자음: 성대(聲帶)가 진동하지 않고 나는 자음.
* 토: 북한에서 조사, 접사, 어미를 구분하지 않고 이르는 말.
* 뒤붙이: '접미사(接尾辭)'의 북한어.

[2점]

- ① '값도'는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갑또]로 발음해야 옳은 것이군.
- ② 겹받침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특정한 자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는군.
- ③ 받침 'ㄹ'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겹받침 발음이 항상 동일하군.
- ④ 자음 앞의 'ㅃ-'은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 장음인지 단음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군.
- ⑤ 남한과 북한은 모두 특정 어간이나 단어의 겹받침 발음에 대한 예외가 제시되어 있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7. (가)는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발음 관련 질문들이다. 답변할 때 (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
ㄱ. '여덟이, 여덟이야'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
ㄴ. '육학년'은 '[유강년]'이 맞나요, '[유강년]'이 맞나요?
ㄷ. '걸으로'를 '[거츠로]'로 발음하면 왜 틀리나요?
ㄹ. '빛이, 빛은'을 '[비시], [비슨]'으로 발음해도 괜찮나요?
ㅁ. '낫'은 '밤낫으로'에서와 '낫일'에서의 발음이 왜 다른가요?

(나)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때 앞 음절의 종성이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앞'에 조사 '이'가 결합할 때 '[아피]'로 발음되는 것이 대표적인 연음의 예이다. 연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표준 발음 여부를 판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부엌이, 부엌은'을 흔히 '[부어기], [부어근]'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연음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잘못된 발음이다.

[2점]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ㅁ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8.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 ㉡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생님의 설명: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에요. '구름, 나라, 하늘' 등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지요. 그런데 이 원칙만 따른다면 '밥'과 같은 단어는 뒤에 오는 말에 따라 '바비(밥+이), 밥또(밥+도),

밤만(밥+만)'처럼 여러 가지로 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를 알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지지요. 이 때문에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추가한 거예요.

[2점]

- ① '먹어, 먹은'은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② '굳이, 같이'는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③ '퍼서(푸+어서), 찢다(푸+었다)'는 어간을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대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④ '미덥다, 우습다'는 어간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⑤ '노인(老人)'과 '원로(元老)'는 같은 한자를 '노'와 '로'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9. 다음 <국어사전>의 발음 정보를 참조할 때, <표준 발음법>의 ㉠와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사전>	
값다[갑 : 따] 넘다[넙 : 따] 밀다[밀 : 다] 밭다[밭 : 따] 안다[안 : 따]	
<표준 발음법>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

[2점]

- ① ㉠ 눈을 감으니 그간의 일이 스쳐 지나간다.
㉡ 졸음에 겨운 아이는 눈이 감기고 있었다.
- ② ㉠ 그는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다.
㉡ 냇물이 넘치지 않게 둑을 높이 쌓아야 한다.
- ③ ㉠ 수레를 뒤에서 밀어 언덕을 넘었다.
㉡ 사람들에게 밀리니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 ④ ㉠ 옆 사람이 발을 밟아 매우 아팠다.
㉡ 발을 밟히는 바람에 발가락을 빼었다.
- ⑤ ㉠ 아이를 다정하게 안아 주었다.
㉡ 아기를 할머니께 안기고 집을 나섰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20. 다음은 잘못된 발음 자료를 수집하여 고치는 탐구 활동의 일부이다. 수정 사항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발음 자료	수정 사항
① 뵈[바 :]	자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 'ㅌ'를 단모음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 :]' 대신 '[뵈 :]'로 발음한다.
② 담임[다님]	'미'를 그대로 연음시켜 발음해야 하므로 '[다님]' 대신 '[다임]'으로 발음한다.
③ 밭을[바슬]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에서 'ㅌ'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슬]' 대신 '[바출]'로 발음한다.
④ 찢다[찢 : 따]	종성에서는 겹받침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찢 : 따]' 대신 '[찢 : 따]'로 발음한다.
⑤ 참말[참말 :]	원칙상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에만 나타나므로 '[참말 :]' 대신 '[참말]'로 발음한다.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